

대내외 여건 급격히 악화… 경기 둔화국면 진단

KDI 5월 경제동향

4개월 연속 부정적 판단 유지
27개월만에 ‘경기 둔화’ 적시
“수출 중심 하방압력 확대 가능성”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영향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향후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KDI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으로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1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문의 안내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종전에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가 보고서에 적시됐던 달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도 수출 부진까지 겹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최근 경기 지표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업 생산은 -14.7%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회복을 떠받칠 건설투자의 급감이 전체 생산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는 3월 기준 14.1% 증가하며 선방

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 전망지수)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중심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1분기(1~3월)로 보면 1.0%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늘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15만5000명)에서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를 밀어올린 데 반해, 이를 제외한 부문은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가시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6%로 급감했으며, 고관세가 부과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한파 여전… 1인당 일자리 수 ‘0.43개’

4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18만명 증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 집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4월 기준)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는 38만여명이지만, 기업 신규 일자리는 16만여명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1년 전보다 각각 6.1%, 9.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4월 기준 2020년 4월(16만3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건설업 고용한파가 여전

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해 21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2%(6000명)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위주로 감소했다. 고용허가제(E-9, H-2) 외 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1만4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며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0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4만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의 경우 정보통신, 도소매, 제조

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위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나머지 3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층 가입자는 증가했다.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6 감소했다. 구인배수 역시 2020년 4월(0.34)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인력 수요는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24.6%)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38만6000명으로 오히려 1만6000명(4.2%) 증가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2021년 4월(73만9000명) 이후로는 가장 많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 4월(1조1580억원)에

유박했다.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황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라며 “3월 취업자 수도 19만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고용지표 완화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보건이나 돌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며 “나머지 산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늘고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社告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원서접수

① 기 간 : 2025년 5월 13일(화) ~ 2025년 6월 09일(월)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6월 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첨부(3~4개, 입사지원서 하단에 첨부하거나 별도 제출)

③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받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① 신입기자 : 2025년 6월 12일(목)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② 경력기자 :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721-9851) 인사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1면 ‘현대차그룹, 글로벌 2위…’서 계속

현지화 등 품질·신뢰 관건

이 차량은 베이징현대가 현지 시장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중형 SUV급 전기차다. 엘렉시오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한 모델이지만, 중국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기능,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을 적용했다. 베이징현대는 엘렉시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6종의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이 논의되면서 현대차·기아는 현지 시장 재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제철용 수수료(사실상 관세 역할)를 대폭 인상했고, 이는 현지 공장 없이 수출 중심 판매에 집중하는 중국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대차가 현지 공장을 재매입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이 관세 여파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시장은 단기 수익보다는 고비용·고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품질 신뢰가 관건”이라며 “높은 불확실성도 안고 있어, 현대차그룹 같은 글로벌 제조사만이 재진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AI 컴퓨팅센터 사업’ 공모 임박… 주요 ITS기업 “검토 중”

사업 참여 관련 신중한 태도 보여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 접수 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ITS) 기업들은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 대표 IT 서비스 기업들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조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참가 계획과 관련한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참여 예정이라거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정도만 밝혔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은 AI 연구·개발(R&D)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민·관 합작 투자를 바탕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대출 등

자금 차입을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는 6년간 공공 출자 2000억원, 자본금 약 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참여자는 SPC 설립 시 지분을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삼성SDS는 이달 19~30일 국가 AI컴

퓨팅 센터 구축 사업 참여 계획을 접수할 것인지, 신청한다면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참여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LG CNS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 등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고, SK C&C 측은 “해당 사업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소관이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